

전북

가족 그리고 체험
가자! 산촌 유람

전북도 올 여름 피서 풍경화 같은 산골마을 6곳 추천

여름 휴가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올 여름 피서여행을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심에서 떠나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마음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내 가볼만한 산촌마을 6곳을 소개한다.
◇민박하며 생태체험=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원천마을은 지리산 뱀사골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풍을 이용한 된장,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 편선형 숙박시설이 있어 지리산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하늘별 여행

산 천문대마을은 별자리 관측을 비롯해 다양하게 피어있는 야생화 탐방도 할 수 있다. 광주권뿐만 아니라 멀리 경기도에서도 찾는 곳으로 학교, 교육청에서 체험교육장으로 많이 찾고 있다.
육정호 기슭에 자리잡은 정음시 산내면 종성리 황토마을(사진)은 세미나실을 겸비한 숙박객실을 8개 갖추고 있어 가족들이 호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목어갈 수 있다. '육정호 50리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며, 최근 조성된 종성리 장미길 21km의 '대장급 마실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은



어른들도 들어갈만한 향아리 700여 개가 장관이다. 이곳은 자연과 전통 맛이 어우러진 민장과 고추장을 1년 이상 전통 장독에 숙성시켜 생산·판매하고 있다.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구신마을은 전통생선에서 발원한 금강 물줄기가 마을앞을 지나고 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두부만들기와 천연염색 체험, 풍등만들기 날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올 여름부터는 전통주(가양주) 제조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 농림사업 마을만들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합구마을은 2010년도 농식품부 'rural-20'(농어촌 관광 대표명소)에 선정된 곳이다. 마을에 자리한 곤충체험관은 150여종의 동물과 물고기, 곤충 등이 전시돼 주말이면 200~300여명이 관람한다. 갯벌체험과 백합개기기를 비롯해 '비오름'(Biotope= 인공적인 생물 서식공간)을 만들어 반딧

불이 체험도 할 수 있다.
◇도내 산촌생태마을 현황= 산촌마을은 산나물 채취와 물고기잡기, 별자리 관측 등 다양한 산촌체험과 자연탐방 프로그램과 함께 숙박이 가능하다.
전북도내에는 ▲장수 7 ▲진안 6 ▲남원 4개소 등 모두 38개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했으며, 올해도 56억 7700만원을 투입해 1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응급중증환자 1시간 이내 진료시스템 마련

전북도가 원광대병원과 함께 응급 중증환자를 1시간 이내에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도와 원광대병원은 23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현장과 헬기 안에서 전문 응급처치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은 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해 중증환자 전문 진료교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들을 24시간 대기시켜 언제든지 응급처치하고 수술해 중증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도교육청, 장애인 시설 생산제품 우선 구매

전북지역 학교들이 도내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김승환 도교육감과 도내 각급 학교장들은 22일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사무용품과 음식재료 등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700여 개 초·중·고교가 참여하며 복사용지와 화장지, 양말, 비누, 장갑, 콩나물, 현수막 등을 정기적으로 살 예정이다.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전북도는 올해도 도청과 각 시군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시립합창단 오늘 65번째 정기연주회

군산 시립합창단은 23일 저녁 7시 30분 시민문화회에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제6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1부는 '발레와 함께하는 사랑의 왈츠'를 소주제로 아름다운 발레공연과 함께 '사랑스런 연이여', '바다의 거센 파도', '내 사랑 그대' 등 프랑스의 '사랑의 왈츠'작품을 선보인다.
2부는 '이야기가 있는 합창'을 소주제로 '사랑이 울까요' 등 남성 합창과 여성합창이 공연되며, 3부는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를 소주제로 어느 중년부부의 슬픈 이별이야기가 담긴 '음악극'을 공연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음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TF팀 운영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정음시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녹색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들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4개 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담당지역(태인, 칠보, 산내, 산외)을 정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안전시설 정비(이동식 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4종 75점씩을 구입해 주요 물놀이 지역에 배치했으며, 물놀이 취약지역 7개소에 위험경고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i@

익산시 25일부터 전국여자야구대회

야구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최근 개장된 익산야구장에서 여자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제1회 익산시장기 전국 여자야구대회'가 열린다. 익산시는 한국여자야구연맹(회장 정여옥)과 공동으로 25일부터 7월3일까지 전국의 21개 여자 야구팀이 참가하는 대회를 연다. 대회는 주말인 25~26일, 7월 2~3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승전과 3-4위전은 네이버 스포츠와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중계를 한다.
익산 종합운동장 안에 조성된 익산야구장(9만여㎡)은 정식규격의 인조야구장 2면과 라커룸, 족구장을 갖췄다.
/전북취재본부=류영명기자 ryu0418@

전주, 인구 100만 새만금 배후도시로

김완주 지사 "R&D·금융·쇼핑·문화 중심 육성"

전주시가 인구 100만명의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민 500여명과 '희망 나눔의 마당'을 가진 자리에서 "전주를 새만금과 첨단산업, 전통문화를 연계한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 조성해 인구 100만의 전국 10대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전북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전주를 만드는데 시민들 모두 합심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프랑스 파리의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처럼 통합적 개발을 통해 전북 전체에 R&

D, 금융, 쇼핑, 문화 등 주요 혁신기능과 행정·광역서비스 기능제공이 가능한 '꿈의 도시, 그랜드 전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가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군산에 대응하는 전주~완주 산업화 벨트와 과학산업화 전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도내에 국내 굴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주는 인적자원 공급 중심지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광역생활권 기반시설도 조속히 확충해 나가

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전국 유일의 탄소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전주를 탄소소섬유와 자동차, 인쇄전자를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전주를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인쇄전자,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이뤄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완주 전통 다듬이소리 '제2의 난타'

군, 음악·무용 결합 공연개발

완주군은 전통의 다듬이소리를 난타와 같은 비언어 공연(Non-verbal Performance)으로 개발한다.
다듬이소리는 현재 완주군 고산면

창포마을 노인들이 공연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술성이 떨어져 본격적인 공연으로 분류하기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전문가를 투입해 이들 노인의 다듬이소리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무용을 결합시켜 전문 공연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임정열 완주군수는 "땀이 뚝뚝 떨어지던 전통소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 2013년에는 무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하서 김인후 선생 도학정신 계승

순창군-성균관대 협약

순창군과 성균관대학교가 호남출신 조선중기 대표적 성리학자였던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의 도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순창군과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는 22일 훈몽재에서 '하서사상 학술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장학기구인 '양현재'와 순창군 '훈몽재'는 교류를 활성화해 ▲하서사상과 순창지역의 유교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정립 ▲유교문화 학술연구의 내실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위해 상호간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군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뜻을 기리고 훈몽재의 역사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지산 2009년 11월에 훈몽재를 중건했다.
신현승 순창군수 권한대행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후학을 양성하는 등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서 김인후 선생은 36세에 벼슬을 버리고 39세 되던 명종 3년(1548년)에 부모를 모시고 순창지역의 유교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정립 ▲유교문화 학술연구의 내실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위해 상호간에 적극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주차장용지·이주주택지·협의지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나공사광주전남지사열 유지빌딩 501
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
●남구 암촌동 한일베리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602평), 일반주거지역, 아스팔트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95만원. (술래동 주택 30평 포함)
소태동 정촌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아파트 부근 정촌지, 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북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무안 함평 영광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 가능한 임야도 있음. 10,000㎡ - 70,000㎡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억원 월세1천3백만원 매매가 20억원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운천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8억원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현재재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대지, 전, 담, 임야
●광송간 대로변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마북동 답3,000㎡ 매매가 7억원
●벽진동 답5,600㎡ 매매가 11억원
●금호동 답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오치동 대지1506㎡ 매매가 4억6천만원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 옆 35M도로 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암촌동 정촌마을대 : 3,600㎡ 매매가 14억3천
●광산구 옥동(평동) 주거지역 답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답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 매매가 : 4억5천만원
주유소매매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다양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기 이하
●도곡동천 무인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송촌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4천
●금남로 3가 대로변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8천 회사사무, 병원·의원 가능 가격은 협의바람
●금남로 칠영금고점 대로변 평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장 될 공시지가 13억 투자가치 좋음 18억
●충정로 5가 수퍼건물 대지27 공시지가 19억2천 매도 19억8천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감정15억4천 임대면적은 전세5천만원 월5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59억3천
●유촌동 평 1632평 청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372 공시지가 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접 주거지역 596평 청고·공정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 매도58700만원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 원룸. 다구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광산구 주유소 5947 대출7억 금8억93천
●대인동 게임시장이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대인동 버스도착장 대지63㎡ 공시지가 매도 1억3400
매도·교환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착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
●사할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역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